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

-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대응반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과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 등 4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2월 22일(금) 12시부터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하였다.

*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2023. 12. 22. 기준)

- 예비주의보: 서·남해 연안(인천 백령도 북측 종단 ~ 경남 거제시 동측 횡단)(12. 19.)
- 주의보: 전남 서해 중·북부 연안(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측 ~ 전남 신안군 효지도 남측 횡단), 충남 가로림만, 전남 함평만(12. 22.)

<저수온 위기경보(해양수산부 발령)>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경계: 저수온 주의보가 4개 해역 이상일 때, 또는 저수온으로 수산생물 피해가 예상될 때

해양수산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비상대책반(반장: 수산정책실장)을 운영하고, 어장관리요령 지도·점검과 같은 현장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발생 이전 양식생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왔으며, 함평만의 경우는 전량 출하가 이루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파로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 등을 통해 수온 추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겨울철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른 사육밀도 조절, 사료급이량 조절 등 정부와 지자체 현장 지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서경란 (044-200-5616)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민병화 (051-720-2750)
			연구사	황재동 (051-720-2751)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책임자	과 장	임현정 (051-720-2410)
		담당자	연구관	남보혜 (051-720-2420)
			연구사	최진 (051-720-2431)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도
(2023년 12월 22일)

